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3월 3일(목)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해양항만과	담당자 • 해양기획팀장 서미숙 ☎440-4821 • 담당자 전한중 ☎440-482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개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기증 참여 확산 홍보
이달의 해양유물, “뽕배” 선정
- 갯벌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꼬막조개 등 채취에 사용 -

인천광역시가 ‘3월의 해양유물’로 봄철 바다의 먹거리 꼬막을 채취하는 어구인 ‘뽕배’를 소개했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해양문화의 대표 거점으로 추진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다양한 전시유물 확보와 시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매월 ‘이달의 해양유물’을 소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해양유물 소개’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기증을 위한 시민참여 확산 운동의 일환으로, 매월 해양유물의 가치를 알림으로써 유물기증에 대한 범(凡)시민 참여 분위기를 독려하고자 기획됐다.

‘뽕배’는 갯벌에서 꼬막, 조개 등을 잡거나 갯벌을 쉽게 이동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작은 배로 널배, 뽕차 등으로도 불린다.

국립해양박물관 소장의 이 뿔배는 길이 2.5m의 긴 널빤지 형태로 한 쪽이 스키처럼 솟아있는 모양이다. 배의 오른쪽에는 철사가 촘촘히 박힌 빗처럼 생긴 씨래가 달려있다. 이 씨래는 갯벌에서 꼬막을 걷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 씨래로 갯벌을 훑으면 흙과 함께 꼬막이 걷어 올려지는데, 그때 씨래를 흔들어 흙을 털어내고 꼬막만 거둬낸다. 어민들은 뿔배의 앞·뒤에 놓인 고무통에 꼬막이 가득찰 때까지 한 발은 뿔배에 싣고 다른 발은 개펄을 밀치며 꼬막을 채취한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갯벌 면적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넓은 규모를 자랑한다. 서남해안 어민들은 빠지기 쉬운 미세한 펄에서의 이동과 채취가 용이한 수단이 필요했고 뿔배가 그 대표적인 이동수단이다. 뿔배어업은 500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업문화로 뿔배는 어업인들의 중요한 운송수단이자 수산물생산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업도구이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2024년 개관 예정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전시될 해양유물 확보를 위해 인천시민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물기증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해양사, 해양교류, 해양예술, 해양민속, 해양과학, 해양산업, 각종 어업·항해도구 등 해양역사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긴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할 의사가 있는 시민은 해양수산부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담당자(전화 044-200-5232)

임현택 시 해양항만과장은 “매월 「이달의 해양유물 소개」를 통해 소중한 해양문화재의 가치를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한다” 며

“2024년 개관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다양한 유물 확보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해양유물을 후대에 널리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붙임]

3월의 해양유물 「뿔배」



근현대 | 너비 47.7cm, 길이 250.6cm |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 출처: 본 이미지는 국립해양박물관에 저작권이 있음을 밝힙니다.